(제44권 22호)

부활절 일곱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7TH SUNDAY OF EASTER

주후 2022년 5월29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통일31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2번 시편 37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장 "세번 아멘" (통일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권영수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Exodus) 3:1-14**		금종각 집사
찬 양 Anthem	"나를 통하여"		임경찬 교우,배예슬 교우
설 교 Sermon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This Shall Be the Sign)**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353)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통일20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염려와 불안에 휩싸여서, 기쁨을 상실할 때가 많았고,
문제에만 집중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지나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5:3-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개역개정 **출3:12**)
"And He said, 'Certainly I will be with you, and this shall be the sign to you that it is I who have sent you: when you have brought the people out of Egypt, you shall worship God at this mountain.' " (NIV **Exodus 3:12**)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5/29 (주일)	5/30 (월)	5/31 (화)	6/1 (수)	6/2 (목)	6/3 (금)	6/4 (토)
본문	신2 시83,84 사30 유1	신3 시85 사31 계1	신4 시86,87 사32 계2	신5 시88 사33 계3	신6 시89 사34 계4	신7 시90 사35 계5	신8 시91 사36 계6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6/1수 오후7:30)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룻1:15-22)
토요 새벽기도회 (6/4토 오전6:30)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83:1-18)

지난 주일(5/22)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3)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사" (출 2:11-25)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지만, (결국) 그의 아내로 주어진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하루 아침에, 가장 높은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에서, 가장 낮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D. L 무디(Moody) 목사님은 "Moses spent forty years thinking he was somebody; forty years learning he was nobody; and forty years discovering what God can do with a nobody."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처음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Somebody)으로 생각했지만, 그후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Nobody)임을 배워야 했고, 그후 나머지 40년 동안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의 형편을 다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나그네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 머물렀던 40년의 시간은 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통과하기에 앞서, (먼저)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하여 광야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설/교/ 메/모